

# 辨證法的 政策決定 理論

## —政策決定의 메타(meta) 理論 序說—

盧化俊\*

### 《目次》

- I. 序論
- II. 目的意志體制의 構造와 相對的 價值變化의 理論的 前提
  - 1. 目的意志體制의 構造
  - 2. 相對的 價值變化의 理論的 前提
- III. 辨證法的 探索體制의 디자인
- IV. 辨證法的 政策決定過程
- V. 結論

### 《要約》

單一한 政策決定은 그것이 아우러 重要한 것이  
라 할지라도 政策이슈(issue)의 認知, 政策決定  
資源의 配分, 政策의 決定, 執行, 여러가지 形態의  
還流 政策決定脈絡의 變化에 따르는 政策이슈  
의 再構成 등의 繼續的인 過程중의 오직 한가지  
過程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政策決定이 하나의  
繼續的인 行爲이기 때문에 政策決定體制의 全般的  
의 政策決定能力의 向上은 다른 어떤 單一政策  
의 改善보다 더 重要하다.

政策決定의 메타理論이 解決해야 할 問題는 바  
로 이와 같이 政策決定能力向上의 方法에 關한 問題  
로서, 이는 基本的으로, (1) 巨視的 水準에서 政  
策決定者가 解決하고 있어야 할 問題를 어떻게 選  
擇하느냐(즉 解決 해야 할 올바른 問題의 選擇에  
關한 理論), (2) 具體的 水準에서 政策決定者가  
解solution하고자 選擇한 問題의 細部的 構造를 어떻게  
具體化하느냐, 그리고 (3) 어떠한 基準下에서  
提案된 解決策을 受容 또는 棄却할 것이냐 하는

問題들인 것이다.

政策決定者가 解決해야 할 올바른 問題의 選定  
은 第三種의 誤謬(the error of the third kind)과  
關聯되어 있고, 메타(meta) 政策決定問題로서 形  
成되어 提案된 解決策을 受容 또는 棄却할 意思  
決定規則과 關聯된 誤謬는 第三種의 메타誤謬(the  
meta error of the third kind)이다. 따라서 政策  
決定의 메타理論이 解決해야 할 課題는 어떻게 하  
면 이러한 第三種의 誤謬와 第三種의 메타 誤謬  
를 最小化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本論文은 헤겔(G.W. Hegel)의 辨證法的 探索體  
制(Dialectical Inquiring System: DIS)와 베이스  
의 推論方法(Bayesian Inference)를 그 理論的 基  
礎로 하여 目標追求의 合理性을 提高하므로서 이  
러한 第三種의 誤謬와 第三種의 메타 誤謬를 最  
小化할 수 있는 理論을 發展시키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 筆者는 現在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助教授이다.

## I. 序論

政策決定體制 그 自體의 改善이 없이는 좀 더 바람직한 政策形成을 위한 政策分析의 效果性이 制約 되거나 심지어는 無用之物이 될 것이라는 認識이 높아짐에 따라 政策을 決定하는 方法에 關한 政策(policy on how to make policy) 즉 메타폴리씨(metapolicy)에 關한 關心이 高潮되어 가고 있다.<sup>(1)</sup>

메타폴리씨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좀더 바람직한 政策가 形成될 수 있으리라는 立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由에서 緣由된다.<sup>(2)</sup>

첫째, 政策決定體制가 創意性, 熟考, 執行 및 還流를 위한 새로운 能力を 發展시키지 못한다면 刷新的인 政策代案이 深思熟考될 機會가 극히 制限될 것이다며, 이러한 새로운 政策決定 厥ئ의 形成에는 政策決定文化를 包含하는 여러가지 政策決定體制 構成要素들의 變化를 必要로 한다.

둘째, 서로 다른 政策들 間의 相互依存性으로 因하여 政策相互間의 適切한 適應을 通합能力의 生成이 없이는 個個政策의 改善이 그리 큰 效果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며, 이러한 效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政策決定體制가 만들어 내는 產出物의 改善이 必要함에 이것은 全體로서의 政策決定體制의 成就程度를 變化 시킴으로써 可能하게 된다.

셋째, 單一의 政策決定은 그것이 아무리 重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슈(issue)의 認知, 政策決定 資源의 配分, 政策決定, 執行, 여러가지 形態의 還流, 脈絡의 變化와 이에 따른 이슈의 再構成 等의 繼續的인 過程中的 오직 한가지 過程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 같이 政策決定이 하나의 繼續的인 行爲이기 때문에 政策決定體制의 全般的인 政策決定能力의 向上은 다른 어떤 單一政策의 改善보다 더 重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政策決定體制의 能力を 向上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重要的根本의 問題이 아닐수 없다. 政策決定의 메타理論(meta theory of policy making)이 解答해야 할 問題은 바로 이러한 政策決定方法에 關한 問題로서, 이는 基本적으로 問題에 關한 探索體制의 디자인(the design of inquiring system)의 問題이며, 아울러 (1) 巨視的 水準에서 政策決定者가 解決해 가고 있어야 할 問題를 어떻게 選擇하느냐(즉 解決해야 할 올바른 問題의 選擇 問題), (2) 具體的인 水準에서 우리가 解決하고자 選擇한 問題의 細部의 構造를 어떻게 具豐化하느냐, 그리고 (3) 어떠한 基準下에서 提案된 解決策을 受容 또는 棄却

(1) Yehezkel Dror, *Design for Policy Sciences*(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Inc., 1971), p.4.

(2) *Ibid.*, p.74-75.

할 것이다: 하는 問題들인 것이다.<sup>(3)</sup> 여기서 探索體制의 디자인에 關한 基本的問題는 그 體制가 探索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體制의 構造內에 무엇이 建設되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가 되며<sup>(4)</sup>, 之에 따라 올바른 問題의 選擇, 問題의 細部的構造의 具體化 및 問題解決方案에 대한 探索基準이 選定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學界와 여러 研究所에서 作成하는 수많은 政策研究報告書나 情報產業技術의 最尖端을 달고 있는 電子計算組織을 基礎로 하는 管理情報體制 및 수많은 專門家들의 共同努力으로 作成한 長期計劃 등이 實제 政策決定들에 의해서 效果의으로 活用되는 比率이 极히 낮은 根本的原因은 바로 이들 政策研究報告書나 혹은 長期計劃報告書가 政策決定者들이 必要로 하는 올바른 問題를 올바른 方法으로 解決해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으며, 아울러 막대한 投資로 設置運營되는 管理情報體制가 政策決定者들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必要한 때에 適切한 形態로 產出해 내지 못함으로써 그 效果性과 效率性은 极히 制限되어 있는 實情이다<sup>(5)</sup>. 技言하면, 政策分析家나 計劃의 樹立家 또는 政策情報體制의 設計者들이 解決해야 한다고 謠知하고 있는 問題들이 政策決定者들의 그것들과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政策分析家나 計劃樹立家 또는 政策情報體制의 設計者들은 政策決定者들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별로 重要하지 않거나 또는 價値가 없는 問題들에 그들의 資源과 精力を 消耗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 專門家들이 올바르지 못한 問題들(wrong problems)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올바르지 못한 問題를 選擇하여 解決하려고 努力할 때 그들은 바로 第三種의 誤謬를 犯하고 있는 것이다.

第三種의 誤謬( $\gamma$ 誤謬)는 그 性質과 重要性에 있어서 第一種의 誤謬( $\alpha$ 誤謬) 및 第二種의 誤謬( $\beta$ 誤謬)와 다르다. 우선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第一種의 誤謬는 우리가 解決하고자 하

(3) Ian I. Mitroff, "A Communication Model of Dialectical Inquiring System-A Strategy for Strategic Planning," *Management Science*, Vol. 17, No. 10(June, 1971), pp. B-634~B-645; Ian I. Mitroff and Frederick Betz, "Dialectical Decision Theory: A Meta Theory of Decision-Making," *Management Science*, Vol. 19, No. 1 (September, 1972), pp.11-12.

(4) 認識論의 土臺위에서 探索體制의 一般理論을 構成하고자 하는 試圖에 對해서는, West Churchmar, "Hegelian Inquiring Systems," *Internal Working Paper* No. 49 (September, 1966), Space Sciences Laboratory, Social Sciences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antian Inquiring Systems," *Internal Working Paper* No. 46 (May, 1966), Space Sciences Laboratory, Social Sciences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ockean Inquiring Systems," *Internal Working Paper* No. 45 (April, 1966), Space Sciences Laboratory, Social Sciences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ationalist Inquiring Systems," *Internal Working Paper* No. 29 (May, 1965), Space Sciences Laboratory, Social Sciences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參照.

(5) 이에 대한 좀더 具體的인 論議에 대해서는, Richard O. Mason, Jr., "A Dialectical Approach to Strategic Planning," *Management Science*, Vol. 15, No. 8 (April, 1969), pp. B-403~B-405; Richard O. Mason, Jr., "Basic Concepts for Design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lfred Rappaport (ed.),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5), pp.2-16; Robert G. Murdick and Joel E. Ross, *Information Systems for Modern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5), pp.246-303 參照.

는 問題의 假說(null hypothesis)이 實際로는 事實(true)인데 이것을 事實로 받아들이기를 拒否하는데에서 基因되는 誤謬이며, 한편 第二種의 誤謬는 이 假說(null hypothesis)이 實際로는 事實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事實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基因되는 誤謬이다<sup>(6)</sup>. 이에 反하여 第三種의 誤謬는 解決해야 할 問題의 選定 그 自體가 잘못된데에서 基因되는 誤謬이다. 따라서 第一種의 誤謬 및 第二種의 誤謬는 假說의 檢證基準을 어떻게 選定하느냐에 따라서 그 差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들 誤謬의 程度는 檢證基準의 函數가 된다<sup>(7)</sup>. 그러나 第三種의 誤謬는 問題의 重要性에 關한 認識 즉 問題選定者의 世界觀과 關聯된 問題로서 좀더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basic world view assumptions: *Weltanschauungen*)의 差異에서 基因된다.<sup>(8)</sup> 따라서 그 重要性이라는 面에서 볼때 第三種의 誤謬는 問題의 形成 그 自體와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第一종의 誤謬 및 第二종의 誤謬에 比해서 根本의이며, 組織體制의 發展方向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組織體制 全體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深刻한 것이다.<sup>(9)</sup>

이미 序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メタ理論은 이러한 第三種의 誤謬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解決해야 할 올바른 問題들을 選擇할 수 있으며, 우리가 選擇한 問題들의 細部的인 構造를 具體化 할 수 있는지에 關한 理論이다. 그러므로 이 理論은 明示的으로 政策決定者 그의 諮問 및 補佐役으로서의 政策分析家, 計劃樹立家 및 政策情報體制 設計家 등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Weltanschaunungen*)들을 政策決定論理의 基本的인 探索體制(inquiring system)에 包含하여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sup>(10)</sup>

以下에서 展開하고자 하는 政策決定의 メタ理論은 目的意志體制(purposeful system)의 構造 및 메타자연 統計理論(Bayesian Statistics)에 그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探索體制와 關聯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論理展開의 順序일 것이다.

(6) Hurbert M. Blalock, *Social Statistics* (New York: McGraw-Hill, Inc., 1972), pp. 158-165.

(7) 第一종의 誤謬( $\alpha$  error)와 第二종의 誤謬( $\beta$  error)는 相互關聯된 것으로서, 檢證基準(decision rule)이 選擇에 따라 그들의 誤謬의 水準이 달라지게 되는데, 論理的으로 볼때 檢證基準의 選定은 순전히 慎意的인 것이다. *Ibid.*, pp.159-160; Richard Bevan Braithwaite, *Scientific Explanation. A Study of the Foundations of Theory, Probability and Law in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1968), pp.173-174; Howard Raiffa, *Decision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68).

(8) Mitrani and Betz, *op.cit.*, pp. 11-12.

(9) Peter Wiles,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p. 246-247; Bertram M. Gross, "The State of The Nation: Social Systems Accounting,"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6), pp. 168-171.

(10) 올마니 問題意識과 政策形成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許範, “政策의 本質” 姜信澤, 權泰俊, 廉化俊, 金煥, 趙錫俊, 許範, 共著, 政策學概論(서울, 法文社, 1976), pp. 56-60.

## I. 目的意志體制의 構造와 相對的 價值變化의 理論的 前提

### 1. 目的意志體制의 構造

論議의 開始를 위해서는 먼저 目的意志의 體制<sup>(11)</sup>가 여타의 다른 體制들과 다른점이 무엇인가를 認分할 必要가 있다. 目的意志의 體制는 (1) 同一한 構造의 環境內에서 서로 다른 構造的方法으로 同一한 機能型의 結果를 產出해 낼 수 있고, 아울러 (2) 同一한 또는 相異한 構造의 環境內에서同一한 構造的方法으로 機能的으로 서로 다른 結果들을 產出해 낼 수 있는 體制이다. 따라서 目的意志의 體制는 一定한 環境的條件下에서 그의 目的을 바꿀 수도 있으며, 또한 그 體制는 이 目的을 追求하기 위한 手段뿐 아니라 그 目的自體를 選擇할 수 있는 體制이다.<sup>(12)</sup> 따라서 이 體制는 目的意志를 나타내는 것이 그 特徵이다.

政策決定者도 目的意志의 體制라는 점에서는 다른 人間들과 하등 다른 점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들 政策決定者들의 政策目的意志가 다른一般的인 個人들의 그것들과 比較해서 他人과 環境에 미치는 影響力이 더 크고 깊으며 長期의이라는 점들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影響力은 政策決定 階序上의 地位가 높을수록 더욱 增大될 것이다.

目的意志 體制로서의 政策決定者가 當面하고 있는 政策決定理論의 哲學的基礎는 그 性格上 目的論의 理論으로서 그 目的論의 表現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sup>(13)</sup>

- (1) 政策決定單位( $Z$ )가 存在하며, 그의 行態는 目的論的(teleological or purposeful)으로 記述되어야 한다.
- (2) 手段으로서 一聯의 利用可能한 行動代案의 集合 $\{A_i\}$ 가 存在한다. 단  $i \geq 2$ .
- (3) 一聯의 可能한 行動結果의 集合 $\{O_i\}$ 가 存在한다.
- (4) 주어진  $O_i$ 를 產出하기 위하여 주어진 手段  $A_i$ 와 共同의 生產者인  $\{S_i\}$ 가 存在한다.
- (5) 一聯의 價值標準의 集合 $\{V_k\}$ 가 存在하며, 이로써 政策決定者는 結果( $O_j$ )의 多次元的 價值를 測定할 수 있게 된다.
- (6) 一聯의 效用의 集合 $\{U_{ijk}\}$ 가 存在하며, 이때  $U_{ijk}$ 는 주어진 手段  $A_i$ 를 使用하여 얻은

(11) 이때 目的意志의 體制란 目的意志를 가진 個人이나 集團 혹은 組織을 指稱하며, 目的意志의 體制 1.外의 다른 體制들로서는, 受動的機能의 體制(passive functional, passive multifunctional system), 反射的機能의 體制(reactive functional, reactive multifunctional system), 및 積極的機能의 體制(active functional, active multifunctional system) 등을 들수 있는데 이들은 目的意志가 缺如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Russell L. Ackoff and Fred E. Emery, *On Purposeful System* (Chicago: Aldine Atherton, Inc., 1972), pp.13-32, 특히 pp. 28-32 參照.

(12) *Ibid*, p. 31.

(13) *Ibid*, pp. 34-60; Russell Ackoff, *Scientific Method* (New York: Wiley, 1962), C.W. Churchman, *Precision and Optimal Decision* (New Jersey: Prentice-Hall, 1961); C.W. Churchman and Russell Ackoff, "An Experimental Measure of Personality," *Philosophy of Science*, Vol. 14 (1947), pp. 304-332.

結果  $O_j$ 에 대한 政策決定者의  $k$ 번째 價值構成要素를 나타낸다.

(7)  $P_i$ 는  $Z$ 가  $A_i$ 를 選擇하는 確率이며,  $P_i = P(A_i/Z)$ 로 表現된다.

(8)  $E_{ij}$ : 行動代案  $A_i$ 가 結果  $O_j$ 를 갖어 올 수 있는 效率性을 나타내며,  $E_{ij} = P(O_j/A_i, Z)$ 로 表現된다.

政策決定者의 目的은 一聯의 環境條件下에서 一定期間 동안에 政策決定者가 產出하고자 하는 가장 強力한 意志의 產物이며, 이것은 이들 條件下에서 成就可能한 것이어야 하며, 目標란 政策決定者가 좀더 長期的으로 追求하는 意志의 產物이다.<sup>(14)</sup> 여기서 우리가 注目하여야 할 점은 政策決定者個人의 個性(personality 또는 individuality)이란 것이 利用可能한 行動路線, 可能한 結果 및 適切한 環境的變數들의 函數로서 個人的 相對的 期待價値( $V_k$ )로서 發現된다는 점과 이 相對的 期待價値는 選擇의 確率, 行動路線의 効率性 및 結果에 대한 相對的 價値로 表現된다는 점이다.<sup>(15)</sup> 그러므로 個性函數(personality function)는 다시 다음과 같은 세개의 函數로 分解될 수 있다.<sup>(16)</sup>

(1) 親熟函數(familiarity function); 이것은 選擇確率을 다른 選擇狀況의 特性들과 關聯시켜주는 函數이다. 換言하면 代案들이 同一한 效果性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行動路線들에 대한 政策決定者의 主觀的인 相對的 本質價値(relative intrinsic value)의 程度를 表示한다.

(2) 知識函數(knowledge function); 이것은 選擇의 效果性을 다른 選擇 狀況의 特性들과 關聯시켜준다.

(3) 意志函數(intention function); 이것은 結果에 대한 相對的 價値를 다른 選擇狀況의 特性들과 關聯시켜 준다.<sup>(17)</sup>

政策決定者的 個性函數를 이와 같이 分解하고 보면, 意志函數는 政策目的의 選互와 關聯되어 있고, 親熟函數와 知識函數는 이러한 選互된 目的의追求를 위한 手段과 關聯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政策決定者の 意志函數는 그의 基本的인 世界觀(world view)에 그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策目的의 選擇은 政策意志에 의하여 決定되게 되고, 政策意志는 政策決定者の 基本的인 世界觀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論理가 成立되게 된다. 따라서 政策分析家나 長期計劃樹立家 등의 立場에서 보면, 우선 政策決定者들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을 理解 하면서 올바른 政策決定에 助力 할 수 있게 되고, 이 世界觀의 假定들에 影響을 미치므로써만 政策意志에 作用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政策目的의 選擇에 影響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아울러 政策決定者들이 追求하는 政策目的의 實現을 위한

(14) Ackoff and Emery, *op. cit.*, p. 56.

(15) *Ibid.*, p. 57.

(16) 親熟函數, 知識函數 및 意志函數에 대한 더 具體的인 論議에 대해서는, *Ibid.*, pp.41-58 參照.

(17) 結果에 대한 相對的 價値의 評價에 대해서는, Peter C. Fishburn, *Decision and Value The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0), pp. 51-103 參照.

政策手段의 選擇 즉 個個의 行動代案들의 選擇에 대한 影響力의 行使는 親熟函數 및 知識函數에 作用하므로서 可能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政策決定者들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에 影響力を 行使하므로서 政策目的의 選擇에 作用할 수 있는 論理的 過程과 方法에 대한 規明은 雷타理論(meta theory)이 解決해야 할 ト장 重要한 理論的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理論展開의 核心的 基礎는 베이지안 推論(Bayesian inference)過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以下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具體的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 2. 相對的 價値變化의 理論的 前提

政策決定者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은 그 假定들을 構成하는 各 要素들 하나 하나에 대한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subjective degree of belief)로 表示된다. 만일 政策目的이 政策意志에 그 基礎를 두고, 또 政策意志가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에 그 根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 假定들이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로 表示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論理的으로 볼 때 政策決定者의 이들 假定들에 대한 信念의 變化는 그 政策意志의 變化를 招來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豫見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政策目的上에 變化가 올것이라는 結論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論議의 核心은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에 대한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의 變化過程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假定들에 대한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의 變化過程을 確率論의으로 表現하므로서 確率論과 雷타理論과의 連繫를 맺을 수 있게 된다.

確率理論에 있어서 確率에 대한 概念은 여러가지로 變化되어 있는데 이 概念變化의 最初의 重要한 轉換點은 램세이(F.P. Ramsey)에 의하여 내려진 確率에 대한 새로운 定義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램세이(F.P. Ramsey)는 確率이란 論理的, 合理的 또는 必然的인 信念의 程度가 아니고, 오히려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로서 어떤 行動을 하고자 하는 意志의 表現이기 때·문에 操作的으로 有意味 하다는 점을 指述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確率이라는 것이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를 表現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變化는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變化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主觀的인 信念의 變化는 어떻게 表現될 수 있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重要한 베이스의 定理(Bayes' Theorem)로 表現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18) 確率의 概念에 대해서 Laplace·De Morgan은 信念의 程度로 畏却하였고, John M. Keynes는 合理的인 信念의 程度로 畏却 한데 반하여 Frank Plumpton Ramsey는 主觀的인 信念의 程度로서 畏却하므로서 意思決定 理論의 發展에 劇期의 轉換點은 이루하였다. Raiffa, *op. cit.*, pp. 275-76.

(19) John Neter, William Wasserman and G.A. Whitmore, *Fundamental Statistic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3) p. 445.

$$\begin{aligned}
 \text{베이스의 정리} : P(B_i/A_j) &= \frac{P(A_j \cap B_i)}{P(A_j)} \\
 &= \frac{P(B_i)P(A_j/B_i)}{\sum_i P(B_i)P(A_j/B_i)}
 \end{aligned}$$

단, 여기서  $A_j$ 와  $B_i$ 는 사건(event)을 나타내며,  $P(A_j)$ 와  $P(B_i)$ 는 각각  $A_j$ 와  $B_i$ 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데 베이스(Bayes)의 정리에서는 이것이 각각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을 나타낸다. 한편  $P(B_i/A_j)$ 는 어떤 특정한 사건  $A_j$ 를 관찰한 후  $A_j$ 가 일어난다는 조건下에 결과적으로 사건  $B_i$ 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이라 한다. 베이스(Bayes)의 정리는 사후 확률의 결정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뿐 아니라 사전 확률을必要로 함을 말해주고 있다.<sup>(20)</sup>

메타리론의立場에서 볼 때 베이스의 정리(Bayes' Theorem)에서 사전 확률은政策决定者가政策分析家들의論爭을觀察하기以前의主觀的信念의程度를 나타내며, 사후 확률은論爭을觀察한後의主觀的인信念의程度를 나타내고, 증거자료들은論爭過程에서 나타난 새로운世界觀의假定들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政策决定者들의政策决定以前의信念의程度(사전 확률)가世界觀의假定들의構成要素들이變化하는데따라서政策决定過程에서바뀔수도있게되며(사후 확률), 이로 말미아마政策决定을하기以前의政策目的이政策决定을하는過程에서再構成될수도있게된다는것이다. 여기에政策目的再構成을위한새로운世界觀의假定들을探索하기위한辨證法의探索體制發展이要請되는所以가있는것이다.

### III. 辨證法的探索體制의 디자인

一般的으로政策决定의過程에 있어서는政策决定權者が政策問題를政策分析의専門家나計劃樹立家들에게指示 또는依賴하여政策目的의達成을 위한合理的의政策 또는計劃의代案들을作成하도록한다. 이때政策代案이나計劃樹立을依賴받은専門家들은주어진問題의解決을위한合理的의方案을探索하기위한model을作成하고,<sup>(21)</sup> 그model에따라몇가지代案들을作成分析評價하여問題의解決에適正한解決代案을찾아내게되고, 그結果를政策決定者에게報告 또는브리핑(briefing)하게된다.政策決定者は이報告書나모

(20) 베이시안 推論의 方法(Bayesian Inference Method)에 대한 論議에 대해서는, Wesley C. Salmon, *The Foundations of Scientific Inference*(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7), pp. 115-26; Bayesian Inference의行政過程에 대한 새로운 impact에 대해서는, Orion White, Jr. and Bruce L. Gates, "Statistical Theory and Equity in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4, No. 1 (January/February, 1974), pp. 43-51 參照.

(21) 模型의作成과探索過程에關한論議에 대해서는, James G. March and Herbert A. Simon, *Organizations*(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8), pp. 115-118; Herbert A. Simon,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9), pp. 27-31, pp. 65-75 參照.

리핑結果를 土台로 政策代案의 選定에 대한 決心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一聯의 過程을 通하여 追求되는 것은 問題 그 自體의 選擇에 대한 合理性 즉 目標選擇에 대한 合理性이 아니라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 選擇의 合理性이라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政策決定者가 問題의 選擇 즉 目標選擇의 合理性을 追求한다면 그가 더 注意하여야 할 事項은 專門家들이 分析하여 입은 代案에 대한 政策分析의 結果가 아니라 專門家들이 그려낸 分析을 하기 위하여 使用한 分析模型 作成의 前提로서 세웠던 基本的인 假定들 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專門家들은 그들 나름대로 未來에 대한 이미지(image)를 가지고 있<sup>23</sup>, 그들이 使用한 模型들은 그들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에 그 根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만이 目的에 대한 合理性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手段에 대한 合理性은 專門家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과 問題의 提起者로서의 政策決定者의 그것이 一致할 때에만 그 意味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政策의 分析이나 計劃의 樹立家로서의 專門家가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 目的選擇의 合理性과 關聯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政策決定者의 合理的인 問題選定過程에 影響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論議의 焦點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目標選擇을 위한 探索의 過程에 關한 問題, 나아가서는 基本的인 探索體制의 디자인에 關한 問題이다. 이러한 探索過程은 最小한 세 가지 要件이 充足 되어야 한다. 즉 첫째 專門家들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이 明示的으로 表現 檢討 되어야 하고, 둘째 이것이 效果的으로 政策決定者에게 傳達되어야 하며, 셋째 政策決定者は 이것을 土壤로 自己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을 再構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要件들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專門家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에 反論을 提起할 수 있는 機會와 雾闊氣가前提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의 專門家 + 다른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을 가진 第二의 專門家가 그의 世界觀에 土壤를 둔 새로운 分析模型에 의하여 새로운 政策代案이나 計劃을 樹立하여 適正代案을 提示하도록 한다. 이때 最初의 專門家를 X, 第二의 專門家를 Y라 한다면, 이들 專門家 X와 Y는 각각 다른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問題解決의 模型과 이에 대한 適正代案들은 어떤 差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問題選定의 合理性을 追

(22) 目的一手段의 連鎖理論에 대해서는,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7), p. 62. 知識의 實踐的活用에 있어서 合理性이란 目的의 合理性(substantive rationality)이라기 보다 手段的 合理性(instrumental rationality)라는데 대해서는,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60-263 參照.

(23) Kenneth E. Boulding,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9); George A. Miller, Eugene Galanter and Karl H. Pribram, *Plans and the Structure of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0).

求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問題의 狀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見解를 가지고 철저히 그리고 論理的으로 分析 檢討 한다면, 이러한 體制는 헤겔(G.W. Hegel)의 辨證法的體制(dialectical system)라 할 수 있다.<sup>(24)</sup> 辨證法的 接近方法은 提案된 各己 다른 두 개의 政策(또는 計劃)代案과 이들 代案들을 誘導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資料들을 識別하는데에서부터 始作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疑問을 提起한다. 즉 “어떤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下에서 이들 代案들은 適正 代案들인가?” 이로써 그 代案들의 基礎가 되는 可能하고 밑을만한 假定들을 具體化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서 專門家 X에 의한 最初의 政策代案(正의 代案)과 마찬가지로 專門家 Y에 依한 第二의 政策代案(反의 代案)도 技術的 및 經濟的인 實現可能性(feasibility)이 있어야 하고 政治的으로 生存可能하여야 하며, 行政組織의 脈絡을 通하여 一般的인 信賴性이 높아야 한다.<sup>(25)</sup>

辨證法的 諮問(dialectical advice)의 基本主題(basic theme)는 政策決定者가 그의 政策問題에 대한 基本的인 假定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며, 正의 政策代案과 反의 政策代案間의 葛藤과 그 論爭에 參與한 諮問者들의 世界觀의 假定들을 觀察하므로서 그들을 理解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内省(reflection)을 誘導하는 基本的인 手段은 構造化된 論爭(structured debate)이다.

傳統의 政策分析家들의 報告書나 政策補佐官들에 의한 傳統的인 政策부리핑(briefing)과는 反對로, 構造化된 論爭은 行政組織內의 政策情報體制가 가지고 있는 全的으로 同一한 資料銀行(data bank)을 通하여 生產되는 資料들을 兩側에서 각各 달리 解析하여야 한다는 制約條件下에서, 서로相反되는 適正政策代案들에 關한 強力한 理論展開에 있다 하겠다.<sup>(26)</sup> 問題에 대한 陳述에 뒤이어, 構造化된 論爭은 그의 世界觀의 假定 또는 狀況에 대한 模型을 記述하는 正의 適正代案을 昭道하는 데에서부터 始作된다. 反의 適正代案의 陳述도 同一한 過程을 거쳐서 進行된다. 이어서 各 資料項目들이 紹介되고, 이를 資料들이 自己들이 主張하는 適正代案의 妥當性을 立證하고, 相對方이 主張하는 適正代案이 그르다는 反證으로서 解析될 수 있다는 것을 論證하는 方法으로 解析한다. 이러한 過程은 資料銀行의 問題

(24)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Mind*(Second Edition), Translated by J.B. Bailie(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4).

(25) Dror, *op. cit.*, pp. 59-62; Yehezkel Dror, *Ventures in Policy Sciences*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Inc., 1971), pp. 45-60.

(26) 同一한 資料들에 대한相反되는 解析을 通한 相衝되는 適正代案의 選擇論爭에 關한 實例에 대해서는, Aaron B. Wildavsky, "The Intelligent Citizens Guide to the Abuse of Statistics: The Kennedy Document and the Catholic Vote," Nelson W. Polsby, Robert A. Denther and Paul A. Smith, (eds.), *Politics and Social Life* (Boston: Houghton Mifflin, 1963), pp. 825-844; Jerome Cornfield, (et. al.), "Smoking and Lung Cancer: Recent Evidence and A Discussion of Some Questions," Edward R. Tufte(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ocial Problem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0), pp. 68-96 參照.

와 關聯된 資料들이 消盡될 때까지 繼續된다.

따라서 辨證法의 探索體制의 디자인(design)은 헤겔(G.W. Hegel)에 대한 치어치만(C.W. Churchman)의 解析에 의하여 提案된 다음과 같은 圖式에 의하여 이루어 지게 된다.<sup>(27)</sup> 즉 正의 適正代案(thesis)은 反의 適正代案(antithesis)에 의하여 否定되는데 이들 兩者는 共히 同一한 資料銀行의 資料(essence)를 土臺로 하여 策造되고, 主張된다. 政策決定者——葛蘇의 觀察者——는 이들을 統合하여 새롭히 擴張된 世界觀을 形成(the synthesis)하게 된다.<sup>(28)</sup> 이러한 統合은 그 政策機關이 當面하고 있는 政策決定問題의 背面에 숨어 있는 假定들을 露出시키는 政策問題에 대한 새로운 概念化的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다.

#### IV. 辨證法的 政策決定過程

辨證法의 探索體制는 政策決定過程에서 目的意志를 가진 서로 意見을 달리 하는 政策諮詢家 X와 Y가 目的意志體制로서의 政策決定者 Z와 더불어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Z의 基本의 世界觀의 假定들을 擴張 또는 再構成하는 體制이고, 이들의 政策決定問題는 目的論의 表現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제 X와 Y가 Z의 政策決定問題를 다음 〈表 1〉과 같은 構造로 表現하였고 假定한다.

〈表 1〉 政策決定 理論 問題空間

	X	Y
(1) 行動代案	$A_i'$	$A_i''$
(2) 選擇確率	$P'(A_i')$	$P''(A_i'')$
(3) 狀態	$S_i'$	$S_j''$
(4) 結果	$O_i'$	$O_j''$
(5) 價值標準	$V_k'$	$V_k''$
(6) 效率性	$E_{ij}'$	$E_{ij}''$
(7) 效用	$U_{ijk}'$	$U_{ijk}''$
(8) 意思決定規則	$D_r'$	$D_r''$
(9) 誤謬	$P_t(A_i'/D_r')$	$P_t''(A_i''/D_r'')$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問題들의 特性들 間의 差異는 이미 論한 辨證法의 探索體制(DIS)의 理論에 의하면, 基本의 世界觀의 假定들의 差異에 의하여 招來된 것이다, 이것이 X와 Y 사이의 意見 不一致의 核心을 이루고, 따라서 辨證法의 論爭의 核心이 된다.

(27) C. V. Churchman, "Hegelian Inquiring System," *op. cit.*; *The Design of Inquiring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1), pp. 149~179.

(28) M:son, *op. cit.*, p. B-408.

여기서  $X \vdash Y$ 의 世界觀들은 각각 一定範數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의 構成要素들의 共通部分(conjunction)으로 表示될 수 있다고 假定 한다.<sup>(29)</sup>

$$\text{즉 } W_X = 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cap_{i=1}^n w_i,$$

$$W_Y = \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 = \cap_{i=1}^n \bar{w}_i.$$

단  $W_X$ 는 이슈(issue)에 關한  $X$ 의 見解이며,  $W_Y$ 는  $Y$ 의 見解를 나타내고,  $w_i$ 는  $X$ 의 世界觀의 假定들의 基本的 構成要素들을, 그리고  $\bar{w}_i$ 는  $w_i$ 와 相衝되는  $Y$ 의 世界觀의 假定들의 基本的 構成要素들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점은 이들 모든  $w_i$ 와  $\bar{w}_i$ 가 全部 다 다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중 一部는 相互間에 同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W_X$ 와  $W_Y$ 에 대해서 위에 定義한것 이외에,  $X$ 와  $Y$  사이에 서로 意見의 一致를 가하는 共通의 世界觀의 假定  $w$ 가 存在할 수도 있다. 이때  $w$ 는 그들이 共通의 데이타 베이스(data base)  $\{d_i\}$ 에 의하여 그들의 立場들을 披瀝하고擁護하는 基礎가 된다. 한편 데이타 베이스에 있는 共通의 資料의 集合  $\{d_i\}$ 는  $W_X$  및  $W_Y$ 에 의해서 採擇되어 操作(coperate)될 때에만 비로소 意味를 가지게 되며, 事實(facts)과 結論으로 轉換된다.

이 경우  $X$ 와  $Y$ 는 相衝되는 世界觀의 假定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世界觀의 假定들 위에 操作된 資料에 의하여 導出된  $X$ 와  $Y$ 의 事實과 結論 또한 相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過程들을 記號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begin{array}{ll} w_1 * d_i \rightarrow c_1 & \bar{w}_1 * d_i \rightarrow \bar{c}_1 \\ w_2 * d_i \rightarrow c_2 & \bar{w}_2 * d_i \rightarrow \bar{c}_2 \\ \vdots & \vdots \\ w_n * d_i \rightarrow c_n & \bar{w}_n * d_i \rightarrow \bar{c}_n \end{array}$$

<表 2> 辨證法的 論爭의 形態

	$X$	$Y$
(1) 行動代案	$w_1 * \{d_i\} \rightarrow A'_i$	$\bar{w}_1 * \{d_i\} \rightarrow A''_i$
(2) 選擇確率	$w_2 * \{d_i\} \rightarrow P'(A_i')$	$\bar{w}_2 * \{d_i\} \rightarrow P''(A_i'')$
(3) 狀態	$w_3 * \{d_i\} \rightarrow S'_i$	$\bar{w}_3 * \{d_i\} \rightarrow S''_i$
(4) 結果	$w_4 * \{d_i\} \rightarrow O'_i$	$\bar{w}_4 * \{d_i\} \rightarrow O''_i$
(5) 價値標準	$w_5 * \{d_i\} \rightarrow V_k'$	$\bar{w}_5 * \{d_i\} \rightarrow V_k''$
(6) 效率性	$w_6 * \{d_i\} \rightarrow E_{ij}'$	$\bar{w}_6 * \{d_i\} \rightarrow E_{ij}''$
(7) 效用	$w_7 * \{d_i\} \rightarrow U_{ijk}'$	$\bar{w}_7 * \{d_i\} \rightarrow U_{ijk}''$
(8) 意思決定規則	$w_8 * \{d_i\} \rightarrow D_r'$	$\bar{w}_8 * \{d_i\} \rightarrow D_r''$
(9) 誤謬	$w_9 * \{d_i\} \rightarrow P_i'(A_i'/D_r')$	$\bar{w}_9 * \{d_i\} \rightarrow P_i''(A_i''/D_r'')$

(29) Mitroff, *op. cit.*, pp.B-636~B-637.

(30) 여기서 \*는 操作者(operator)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資料의 操作過程을 거쳐서 X와 Y 사이에 築造되는 辩證法的 論爭의 形態는 <表 1>와 같이 될 것이다. <sup>(31)</sup>

여기서 注意해야 할점은 X와 Y가 모든  $w$ 에 對해서 論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몇 가지에 對해서는 相互一致하는 要素들도 있을 것이며, 이때의 論爭은 相衝되는  $w$ 의 要素들이 대체로만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論爭을 通하여 Z는 하나의 統合된 見解(a synthetic view)인  $W_Z$ 를 形成하게 된다. 물론 그는 自己自身의  $w$ 를 導入할 수도 있고, 單純히 X와 Y의 世界觀의 假定들을 構成하는 要素들 중에서 몇 가지씩을 받아들여 얻은 새로 統合된 見解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가장 單純且統合形態인 後者の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sup>n</sup> 가지의 統合된 見解가 可能하게 된다.

$$V'_{Z(1)} = 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W_X$$

$$V'_{Z(2)} = \bar{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V'_{Z(3)} = \bar{w}_1 \cap \bar{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V'_{Z(2^n-1)} = \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1} \cap w_n$$

$$V'_{Z(2^n)} = \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1} \cap \bar{w}_n = W_Y$$

辨證法的 論爭의 目的是  $w_i$  및  $\bar{w}_i$ 가 각각  $c_i$  및  $\bar{c}_i$ 를 含蓄하고 있음을 Z에게 보여주므로서 Z로 하여금  $w_i$  및  $\bar{w}_i$  중에서 選擇하여  $W_Z$ 를 再構成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統合된 見解를 形成도록 하는데 있다.

이제 論爭을 通하여 世界觀의 假定  $w_i$  또는  $\bar{w}_i$ 를 받아들일 確率을  $P_i$ 라 한다면, 論爭을 始作하기 以前의 X와 Y의 事前確率(*a priori*)은

$$X : P(w_i) = 1, \quad P(\bar{w}_i) = 0 \text{ 및}$$

$$Y : P(w_i) = 0, \quad P(\bar{w}_i) = 1$$

로 表示될 수 있고, 論爭을 끝낸 後의 事後確率(*a posteriori*)은

$$X : P(w_i/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1, \quad P(\bar{w}_i/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0 \text{ 및}$$

$$Y : P(w_i/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0, \quad P(\bar{w}_i/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1$$

이 된다.

論爭을 始作하기 以前과 以後의 確率은 각각 X와 Y의 心理狀態에 대한 定義로서, X와 Y가 각각 確固한 兩極의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論爭 以前이나 以後에 있어서 X와 Y의 事前確率과 事後確率이 變化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確固不同한 見解가 一慣性을 維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政策決定者인 Z에 關한 事情은 매우 다르다. Z는 X와 Y 사이의 論爭을 觀察

(31) Miroff and Betz, *op. cit.*, p. 15.

한후 여기서 설계되는 情報를 土臺로 그가 가지고 있는 事前確率을 修正하게 된다.

먼저  $Z$ 가 最初에  $X$ 의  $i$ 번째 世界觀의 假定要素를 받아들일 確率을  $P(w_i)$ ,  $Y$ 의  $i$ 번째 世界觀의 假定要素를 받아들일 確率을  $P(\bar{w}_i)$ 라 한다면, 論爭을 듣기 以前의 最初의 統合的立場(synthetic position)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될 것이다.

- (1)  $P(A_1) = P(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2)  $P(A_2) = P(\bar{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3)  $P(A_3) = P(\bar{w}_1 \cap \bar{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vdots$
- ( $2^n - 1$ )  $P(A_{2^n - 1}) = P(\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1} \cap w_n)$
- ( $2^n$ )  $I(A_{2^n}) = P(\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

그러나  $X$ 와  $Y$ 의 論爭을 觀察한 後  $X$ 와  $Y$ 가 주장하는 世界觀의  $i$ 번째 假定要素가 含蓄하는 바를 觀察한 후,  $Z$ 가  $X$ 와  $Y$ 의 世界觀의 假定要素들을 받아들일 事後確率(*a posteriori*)  $P(w_i/c_i)$ 와  $I(\bar{w}_i/c_i)$ 는 다음과 같다.

$$P(w_i/c_i) = \frac{P(w_i)P(c_i/w_i)}{P(w_i)P(c_i/w_i) + P(\bar{w}_i)P(c_i/\bar{w}_i)}$$

$$P(\bar{w}_i/c_i) = \frac{P(\bar{w}_i)P(\bar{c}_i/\bar{w}_i)}{P(\bar{w}_i)P(\bar{c}_i/\bar{w}_i) + P(w_i)P(\bar{c}_i/w_i)}$$

여기서  $P(c_i/w_i)$  및  $P(\bar{c}_i/\bar{w}_i)$ 는  $w_i$  와  $\bar{w}_i$  가 發表된 후  $Z$ 가  $w_i$  및  $\bar{w}_i$  가 각각 含蓄하고 있는  $c_i$  및  $\bar{c}_i$ 를 받아들일 確率을 나타낸다.

만일  $R$ 와  $\bar{R}$ 을 각각

$$R = \frac{1}{1} \frac{(c_i/w_i)}{(c_i/\bar{w}_i)} \text{ 및 } \bar{R} = \frac{P(\bar{c}_i/\bar{w}_i)}{P(\bar{c}_i/w_i)} \text{ 를 나타낸다고 假定하면,}$$

$$P(w_i/c_i) = \frac{RP(w_i)}{RP(w_i) + [1 - P(w_i)]}, \quad P(\bar{w}_i/\bar{c}_i) = \frac{\bar{R}P(\bar{w}_i)}{\bar{R}P(\bar{w}_i) + [1 - P(\bar{w}_i)]}$$

로 表示될 것이다.

$X$ 와  $Y$ 의 論爭을 通하여 그들의 世界觀의 假定要素들이 含蓄하는 바를 觀察한 後에  $Z$ 가 取할 最終의 統合的立場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  $I(A_1/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P(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2)  $I(A_2/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P(\bar{w}_1 \cap w_2 \cap w_3 \cap \dots \cap w_n / 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vdots$
- ( $2^n$ )  $I(A_{2^n}/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 P(\bar{w}_1 \cap \bar{w}_2 \cap \bar{w}_3 \cap \dots \cap \bar{w}_n / c_1, \dots, c_n, \bar{c}_1, \dots, \bar{c}_n)$

그러면  $Z$ 가 이러한  $2^n$ 個의 最終의 統合的立場들 가운데서 어느것을 取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X$ 와  $Y$ 가  $Z$ 로 하여금  $c_i$ 를 받아들이도록 說得할 수 있는 說得力의 程度에 의하여決定되게 든다.<sup>(32)</sup> 그리고 이때  $R$ 는  $w_i$ 를 發表한 후  $X$ 가  $Z$ 로 하여금  $c_i$ 를 받아들이도록 影

(32) Mitroff, *op. cit.*, pp. B-639~B-643.

影響力を行使할 수 있는 程度를 나타내며, 또한  $\bar{R}$ 는  $w_i$ 가 發表된 후  $Y$ 가  $Z$ 로 하여금  $c_i$ 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影響力의 程度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bar{R} \geq R$ 인 경우에는  $Y$ 의 주장(즉  $c_i$ )이  $X$ 의 世界觀의 假定(즉  $w_i$ )을 否定하는 方向으로, 그리고  $Y$ 의 世界觀의 假定(즉  $w_i$ )을 肯定하는 方向으로 政策決定者인  $Z$ 에게 影響力を 行使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Y$ 가  $X$ 보다 좀 더 說得力이 있다면(즉  $\bar{R} \geq R$ ), 最初에는  $Z$ 가  $Y$ 보다  $X$ 의 見解에 더 同調했다 할지라도 論爭을 觀察한 후  $X$ 보다  $Y$ 의 世界觀의 假定에 더욱 同調하게 됨을 意味한다.

이러한 辨證法的 論爭의 結果 形成된 政策決定者  $Z$ 의 雜政策問題은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雜政策問題空間

	Z
(1) 行動代案	$A_i = CA_i = f(W_{Z(i)}, W_X, W_Y)$
(2) 選擇權率	$P_i = P(CA_i/Z) = \text{政策決定의 第三種의 誤謬}$
(3) 結果	$O_j = \{A'_i, P'_i, V'_k, E'_{ij}, U'_{ijk}, D'_r, P'_t\} \times \{A''_i, P''_i, V''_k, E''_{ij}, U''_{ijk}, D''_r, P''_t\}$
(4) 價直標準	$V_k = \text{政策決定問題에 있어서 第三種 誤謬의 最小化}$
(5) 效率性	$E_{ijk} = P(O_j/CA_i, S, Z)$
(6) 效用	$U_{ijk} = V_k$ 를 獲得할 수 있는 程度의 尺度
(7) 意思決定規則	$D_r = E_{ij}$ 에 關한 知識의 函數
(8) 誤謬	$P_i = \text{第三種의 雜誤謬(meta error), 즉 잘못된 雜政策問題形成의 誤謬}$

<表 3>에 기 注意하여야 할점은 行動代案  $CA_i$ 가  $W_{Z(i)}$ ,  $W_X$  및  $W_Y$ 의 函數라는 점인데, 이것은 雜政策問題에 있어서 行動代案은 單純히  $Z$ 의 統合된 世界觀의 假定  $W_Z$ 인 것이 아니라,  $W_Z$ ,  $W_X$  및  $W_Y$ 의 函數라는 점이다. 그리고  $CA_i$ 는 雜政策問題의 行為가 條件的 選擇行為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條件的 選擇行為란 이들 行為가 特定한 辨證法的 論爭의 形態와 構造에 의하여 條件지어 진다는 것을 意味한다.<sup>(33)</sup>

그러므로 第三種의 誤謬( $\gamma$  誤謬)는 한편으로는 政策決定問題를 選定하는 基盤을 이루는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의 函數이며, 아울러 辨證法的 探索體制(DIS)의 形態와 構造의 函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辨證法的 論爭의 形態와 構造가 달라지면 이것이  $W_Z$ 의 形成에 強力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雜政策問題에 있어서의 行動代案은  $X$ 와  $Y$ 의 基本的인 世界觀의 假定들의

(33) 例컨데  $X$ 가 基本的 世界觀의 構成要素  $\{w_i\}$  하나를 發表하고, 이에 對應하는  $Y$ 의  $\{\bar{w}_i\}$ 를 發表하기 하여 論爭하고, 다음에 다시  $X$ 의 第二의  $\{w_i\}$  要素를 發表하고, 이에 對應하는  $Y$ 의 第二의  $\{\bar{w}_i\}$  要素를 發表하게 하여 論爭을 繼續하는 形態를 取하는 경우와, 먼저 相衝되는  $X$ 의 모든  $\{w_i\}$  要素 全部와 그들이 含蓄하는  $\{c_i\}$ 를 全部 發表한 後에  $Y$ 가  $\{\bar{w}_i\}$  要素 全部와 그들이 含蓄하는  $\{c_i\}$ 를 全部 發表하는 形態를 取하는 경우는 그들이  $Z$ 의 統合된 世界觀  $W_{Z(i)}$ 의 選擇에 미치는 影響力은 각各 다를 것이다.

統合에 의하여 形成되는 條件的 選擇行為이기 때문에, 메타(meta) 政策決定問題에 있어서의 結果는 X와 Y의 각각의 政策決定問題로부터 形成될 수 있는 모든 統合된 政策決定問題들에 의하여 일어지게 될것이며, 이를 새로 統合된 政策決定問題에 의하여 일어진 結果의集合은 X의 政策決定問題과 Y의 政策決定問題間의 카테지안 크로스 프로덕트(catesian cross-product)로서 이루어 지게 된다.

메타政策決定規則(meta decision rules)과 메타誤謬(meta errors)들은 相互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먼저 政策決定問題에 있어서 X와 Y의 政策決定規則을 각각  $D_r'$  및  $D_r''$ 라 한다면 Z가 政策決定規則  $D_r$ 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疑問이 提起되게 된다. 즉 Z가 메타(meta) 政策決定問題에 있어서 X의 政策決定規則  $D_r'$ 와 Y의 政策決定規則  $D_r''$  가운데에서 그가 使用할 政策決定規則을 選定한다 할때에, 어떤 意思決定規則  $D_r$ 를 使用하여 이들 가운데에서 選定하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政策決定規則의 選定의 基準으로서 活用할 Z의 意思決定規則  $D_r$ 는 무엇이 되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메타 意思決定規則(a meta-meta decision rule) 選定의 問題이다.

이와 같은 高次元의 메타-메타 意思決定規則(a higher order meta-meta decision rule)의 探索은 正式的인 意思決定理論의 範圍내에서 全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探索體制들에 대한 非正式的인 探究로서 이루어 지게 된다.<sup>(34)</sup>

한편 第三種의 誤謬는 잘못된 政策決定問題의 形成인데 비하여, 第三種의 메타誤謬는 잘못된 메타(meta) 政策決定問題의 形成이다.

그리므로 第三種의 메타(meta)誤謬의 測定은, (1) 서로 다른 辩證法的 探索體制들(例컨데 다른 X, Y 및 Z)의 函數로서의 第三種의 誤謬가 어떻게 變化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2) 만일 辩證法的 探索體制 以外의 다른 探索體制들(例컨데 Lock의 探索體制, Kant의 探索體制 등)는 政策決定의 메타(meta)理論을 構成하는 基礎로서 使用한다면 γ의 값이 어떻게 變化하게 될 것인가를 考慮하므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sup>(35)</sup>

따라서 메타(meta) 政策決定規則의 探索이나 第三種의 메타(meta)誤謬의 測定은 辩證法的 探索體制의 境界範圍를 넘어서 다른 探索體制로 政策決定의 메타理論이 擴大되어야 할것이라고 하는 必要性을 反映해 주는 것이다.

## V. 結論

지금까지 政策決定理論들은 주로 目標가 주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이를 주어진 目標를 成就할 수 있는 最適의 解決方案을 形成할 수 있느냐 하는 手段의 合理性에 焦點을 둔 理

(34) Mitröf and Betz, *op. cit.*, pp. 20-22; Raiffa, *op. cit.*, p. 266.

(35) C.W. Churchman, *The Design of Inquiring Systems*, *op. cit.*, pp. 274~278.

論들이 大部分이 있다. 물론 이러한 理論들이 實제 政策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하고 有益하다는 것은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合理的인 行動, 合理的인 政策決定。란 이와 같이 目標가 주어진 경우의 手段에 대한 合理性의 追求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 오히려 더 根本的이고도 重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合理的인 目標의 探索이다, 合理的인 目標의 定義問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合理的인 行動이란 手段의 合理性은 물론이고, 目標選擇의 合理性이 높은 行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目標選擇의 合理性를 追求하는데 대한 理論이 바로 우리가 發展시켜야 할 雖然理論인 것이다. 本 論文은 이러한 雖然(meta)理論의 한 基礎로서 헤겔(G.W. Hegel)의 辨證法의 探索體制를 導入하여 政策決定者가 目標의 合理性를 追求할 수 있는 方法에 대한 理論構成을 試圖하노 보았다.

이러한 雖然(meta)理論의 展開過程에서 우리가 歸着한 두 가지 結論中의 한 가지는 理論的側面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政策決定過程의 實際的인 側面이다.

첫째 政策決定理論으로서의 雖然(meta)理論은 辨證法의 探索體制(DIS)以外의 다른 여러가지 探索體制(DIS)들을 同時的으로 發展시키므로서 第三種의 雖然誤謬를 最小化 할 수 있는 理論體系의 構成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政策決定者는 現代와 같이 여러 구룹의 專門家集團이 形成되고 存立하는 狀況下에서, 어느 하나의 特定 專門家나 또는 한 特定의 專門家集團에 대한 지나친 信賴를 두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며, 따라서 그러한 信賴를 높힐수 있는 條件의 造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專門家들에게 最大限으로 挑戰할 수 있는 方法을 探索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策決定者는 하나의 專門家 또는 그와 見解를 달리 하는 어느 다른 하나의 專門家에 대한 信賴의 構築에 注力할 것이 아니라 이들 專門家들에 대한 끊임없는 疑問을 提起할 수 있는 挑戰的 姿勢의 構築에 더 注力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6) C. V. Churchman, "On Rational Decision Making," *Management Technology* Vol. 2, No. 2 (December, 1962) pp. 71-76; 合理的인 意思決定의 倫理的側面에 대한 論議에 대해서는, Kenneth E. Boulding, "The Ethics of Rational Decision," *Management Science*, Vol. 12 (February, 1966), pp. 161-169 參照.